

# ‘우크라이나 사태’로 지역 자동차 업계 ‘브레이크’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서방의 러시아 강경 제재가 가시화되면서 자동차업계가 받을 영향이 만만치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면서 지역 주력 산업인 자동차와 타이어업계의 타격도 우려된다. 러시아에 완성차를 수출하고 있는 기아와 자동차 부품을 수출하는 지역 협력업체 등이 이번 러시아 제재가 장기화될 경우 피해를 입을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1일 자동차업계에 따르면 미국을 비롯한 서방이 러시아를 국제은행간통신협회(SWIFT·스위프트) 결제망에서 퇴출하기로 하는 등 대러 금융·무역 제재 강화 조치가 잇따라 발표되면서 현대차 등 완성차 업체뿐 아니라 대러 수출을 주력으로 삼고 있는 부품업체들도 촉각을 세우며 대응책 마련에 나서고 있다.

지난해 기준 우리나라의 대러 자동차 관련 수출 비중은 40.6%에 달한다. 이 중 승용차가 25.5%, 자동차 부품이 15.1%다.

## 완성차·부품 수출기업 타격...러 제재 장기화면 줄도산 우려 기아 현지 공장 가동 차질...전면전 댄 내수 29% 줄어든 듯

특히 국내 자동차 부품 협력업체 입장에서 러시아는 전체 수출액이 연간 15억달러(약 1조8097억원)에 달해 미국과 중국 다음으로 중요한 시장으로 꼽힌다.

완성차 업체와 비교해 규모가 작은 부품업체들이 먼저 타격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러시아에 대한 고강도 제재가 장기화되면 최악의 경우 줄도산할 수 있다는 우려 섞인 관측까지 나온다.

지난해부터 계속된 차량용 반도체 품귀현상이 해소되지도 않은 상황에서 팔라듐, 백금 등 차량용 반도체에 들어가는 원자재의 공급이 더욱 어려워지면서 부품 생산에 차질이 발생할 수밖에 없어서다.

현재 국내 부품업체가 러시아로 수출하는 부품의

90% 이상은 상트페테르부르크에 위치한 현대차 공장으로 납품되고 있는데 부품 공급에 문제가 생길 경우 현대차·기아의 현지 공장 가동도 어려워질 가능성이 높다.

이뿐만 아니라 미국의 전략물자 수출 통제에 따라 미국산 반도체나 소프트웨어가 탑재된 자동차의 대러 수출 자체도 제한될 수 있다.

한국자동차산업협회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간 충돌이 전면전으로 확대될 경우 러시아 현지의 내수 판매가 약 29%까지 줄어들 것으로 추정했다.

기아 오토랜드 광주를 비롯해 지역에 소재한 자동차 부품업체의 후유증이 우려되는 이유다. 무엇보다 협력업체들은 대금 결제가 밀리거나 주문량이

감소하면 당장 손실을 면하기 어렵다는 점도 걱정스러운 부분이다.

타이어업계 또한 이번 사태로 긴장의 끈을 놓지 못하고 있다. 타이어의 주요 원재료인 카본 블랙과 합성고무 등은 석유를 원료로 하고 있어 유가 상승의 직접적인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 이번 침공 사태와 러시아에 대한 고강도 제재로 국제유가가 다시 치솟을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기 때문이다.

자동차와 타이어업계 외에도 지역 중소기업들이 입을 피해도 적지 않을 것이라는 예측도 나온다.

이날 한국무역협회 광주전남본부에 따르면 우크라이나에 직접 수출을 하고 있는 광주·전남 소재 수출기업은 49개사로, 러시아로 수출을 하고 있는 기업은 168개사에 달한다.

지역 경제계 관계자는 “러시아에 대한 경제 제재로 자동차와 타이어, 지역 수출기업들은 수출 차질은 물론, 대금회수 등 각종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박기용 기자 pboxer@kwangju.co.kr



## 광주 애니메이션 지상파서 만나요

5브릭스 제작 ‘타타와 쿠마’  
EBS 오늘부터 매주 4편씩

광주 애니메이션 제작사 작품이 지상파 방영을 앞두고 있다.

광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은 광주 ㈜5브릭스의 애니메이션 ‘타타와 쿠마’(사진)가 2일 오후 6시 45분 EBS에서 방영된다고 1일 밝혔다.

㈜5브릭스는 광주시의 문화체육관광부가 주관하고 광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이 운영하는 ‘CG활용프로젝트 제작지원사업’에 선정됐다. 최근에는 투자배급사 와이드브레인스파크의 투자를 유치하며 첫 상업 작품인 ‘타타와 쿠마’를 선보였다.

이 작품은 회당 2분 30초 안팎으로 총 52편 제작됐다.

EBS에서는 매주 4편씩 방영된다.

5브릭스는 앞으로 이 작품을 동영상 서비스(OTT) 플랫폼과 유튜브, 소셜미디어 등을 통해 해외시장에도 선보일 예정이다.

/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

# “기아, 통상임금 500억 지급하라”

직원 2446명 2건 소송 일부 승소 판결...1인당 1960만원

기아차 통상임금을 둘러싼 과거의 노사 특별합의와 별개로 소송을 낸 2000여 명의 직원에게 500억원에 달하는 임금을 지급하라는 1심 판결이 나왔다.

1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2부(당시 마은혁 부장판사)는 이달 중순 기아차 직원들이 회사를 상대로 낸 임금 소송 2건을 각각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이 소송은 직원 총 2446명이 2건으로 나눠 제기했으며 판결에 따르면 기아차가 지급해야 할 임금

은 두 소송을 합쳐 총 479억4000여만원이다. 1인당 평균 1960만원가량이다.

노동조합이 제기한 1·2차 통상임금 소송의 항소심에서 패소한 기아차는 2019년 3월 소송을 취하하거나 부채소 동의서를 회사에 제출한 직원에게 일정 금액을 지급하기로 노조와 특별합의를 맺었다.

그러나 일부 직원은 특별합의에 동의하지 않고 2019년 5월 2011~2014년분 임금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정점은 2011~2014년분 임금을 둘러싼 소송을 이미 과거에 한 차례 노조 대표자 13명이 제기했다가 취하했는데도 다른 직원들이 개별 소송을 낼 수 있는지였다.

노조는 2011년부터 3년마다 한 차례씩 소송을 냈다. 임금 청구권 소멸시효가 3년인 점을 고려해 2011년, 2014년, 2017년 각각 과거 3년분 임금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한 것이다.

그런데 재판이 예상보다 길어져 2차 소송을 제기할 때까지 1차 소송의 1심 판결조차 나오지 않았고, 노사는 일부 대표자만 소송을 내고 그 결과를 전 직원에게 적용하기로 합의했다.

이에 따라 원고가 2만7000여명에 달했던 1차와 달리 2차 소송은 노조 대표자 13명만 원고로 이름을 올렸다. 그 결과 2차 소송은 비교적 빠르게 진행돼 1차 소송과 같은 날 1심과 항소심 판결을 각각 선고받았다.

2심 선고 후 2차 소송의 원고 13명은 회사와의 특별합의에 동의해 소송을 전부 취하했고, 특별합의에 동의하지 않은 일부 직원이 이번 소송을 제기했다.

기아차는 재판에서 “원고들도 대표소송 합의를 받아들여 소송을 내지 않기로 합의했거나 적어도 제소권을 포기한 것으로 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피고(기아차)와 노조 사이에 대표소송 합의가 체결됐다는 사실만으로 개별 근로자들이 피고와 소송을 제기하지 않기로 합의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연합뉴스

# “거리두기 완화로 경기 좋아질 것”

중기중앙회 광주전남본부, 212곳 조사...3개월만에 경기전망 반등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로 광주·전남지역 중소기업 경기전망이 3개월만에 다시 상승세로 돌아섰다.

중기중앙회 광주전남지역본부는 지난 14일부터 18일까지 지역 중소기업 212개사를 대상으로 ‘3월 광주·전남 중소기업 경기전망’을 조사한 결과, 중소기업 업황전망 경기전망 지수(SBHI)가 90.6으로 전월(80.8) 대비 9.8포인트 상승했다고 1일 밝혔다.

SBHI는 지난해 12월(99.0) 이후 3개월 만에 상승세로 돌아선 것으로, 중기중앙회는 영업시간 연장, 다중이용시설 출입 명부 의무화 잠정

중단 등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를 다소 완화한 게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했다.

하지만 지수가 기준치에 여전히 못 미치는 데다 오미크론 대유행으로 확진자가 무더기로 쏟아지는 상황에서 기대만큼 경기개선이 이뤄질지는 미지수다.

SBHI 지수는 지난해 1월 69.4로 기준치(100)를 크게 밑돌며 70이하로 떨어진 뒤 등락을 반복했다가 지난해 말 99.0까지 오른 뒤 1월(83.3)과 2월(80.8) 등 2개월 연속 주저앉았다.

지역별로 광주는 전월(79.8) 대비 6.6포인트 상승한 86.4, 전남은 전월 82.3과 비교해 13.9

포인트 오른 96.2로 전망됐다.

업종별로 제조업과 비제조업 모두 각각 11.0포인트와 8.6포인트 상승한 97.5와 84.5로 조사됐다. 항목별로 내수판매(79.7~88.2), 수출(85.4~94.0), 경상이익(78.3~82.8), 자금사정(75.5~80.9) 등 대부분 항목에서 지난해와 비교해 개선된 것으로 전망됐다.

경영여로 사항(복수응답)으로 내수부진(59.9%) 비중이 가장 높았고, 인건비 상승(55.7%), 원자재 가격 상승(44.8%), 업체 간 과당경쟁(44.8%)이 뒤를 이었다.

/박기용 기자 pboxer@kwangju.co.kr

# 전남도, 제로페이 가맹점 확보 박차

지난해 4만8334개소...올해 5만5000개 목표

전남도가 소상공인과 소비자 모두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제로페이의 도내 가맹점을 올해 5만 5000개까지 늘린다는 목표로, 가맹점 확보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이와 함께 도민 이용률 높이기에도 온 힘을 쏟을 방침이다.

1일 전남도에 따르면 제로페이 출시 후 도내 가맹점 수는 2019년 8340개소에서 3년이 지난 2021년 말 현재 5.8배 증가한 4만8334개소에 이

른다.

결제금액은 2019년 2만5000건 3억원에서 2021년 57만2000건 233억 원까지 늘었다. 결제건수는 23배, 금액은 77배가 상승, 이용 규모가 비약적으로 늘고 있다.

그동안 전남도는 소비자의 제로페이 이용률을 높이기 위해 10% 선환인 쿠폰 발행 이벤트와 지역사랑상품권 연계 등 사업을 추진했다. 가맹점

확대를 위해 권역별 서포터즈 운영, 기관·단체를 통한 안내, 소비자 혜택 등 홍보에 주력했다. 제로페이는 가맹점의 결제 수수료를 낮추고, 소비자에게 소득공제 혜택을 주기 위해 도입한 소상공인 간편결제 시스템이다. 결제는 제로페이 플랫폼을 이용해 소비자의 계좌에서 판매자의 계좌로 이체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연 매출 8억원 이하 소상공인은 제로페이 결제 수수료를 내지 않아도 되며, 매출 8억원을 초과한 소상공인에게는 0.3%의 수수료를 부과한다. 이는 연 매출 30억 원 이하 신용카드 가맹점의 결제 수수료인 0.5~1.5%(우대수수료율 기준)보다 낮은 수준이다.

/윤현석 기자 chadol@

# 전남 유치기업 돕는 ‘SOS제’ 아세요

도, 현장기동반 가동 총력 지원...기업·유관기관 협력체계도 구축

전남도가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국내외 경제 상황 악화에도 지역경제 활성화에 최선을 다하는 기업의 애로사항을 발굴하고 적극 대처하기 위해 다각적인 지원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전남도는 지난해 유치기업 SOS 제도를 활용해 투자기업 전남 공무원제도(PM)를 운영, 45개 기업을 방문해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이를 통해 ▲재정지원 관련 건의 ▲전문인력 채용에 대한 지원 건의 ▲단순 시설물 불편 사항 ▲기업 주변 환경 개선 등 83건의 요구사항을 발굴했다.

실제로 고흥 바이오텍(주)의 ‘대체작물 카무트 시범재배 허가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고흥군 시범재배 허가부서에 이를 연계하고, 대체작물 경작 시 보조금을 받을 방법을 안내했다. 전남에서 유일하게 ‘농수용방수문 개폐기’를 생산하는 강진 덕성이엔지니어링의 판로 확보의 어려움을 호소함에 따라

전남도 도정소식지 ‘전남새봄’에 게시해 제품을 홍보했다. 이처럼 그동안 83건의 요구사항 중 63건을 해결했다. 화순군이 건의한 ‘버스 노선 증설 및 산단 내 보육시설 건립’ 등 장기적 검토가 필요한 20건에 대해선 관련 중앙부처와 협의하는 등 체계적으로 해결책을 모색하고 있다.

전남도는 올해도 기업의 애로사항을 적극 발굴하기 위해 ‘기업 SOS 현장기동반’을 운영하고, 면담 희망 기업체를 모집해 수시 방문 및 현장 간담회를 추진할 계획이다. 기업과 유관기관의 소통 채널을 활성화하기 위한 협력체계도 구축한다.

전남도 관계자는 “유치기업 SOS제도는 활동에 어려움이 있는 기업을 지원하는 사업”이라며 “투자기업 사후관리 시스템 등을 적극 운영해 기업의 애로 해소와 만족도 개선에 앞장설 것”이라고 말했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 중기·소상공인 수도요금 50% 감면 유지

수자원공사 영·섬유역본부

한국수자원공사 영·섬유역본부는 올해도 3년 연속 중소기업·소상공인을 대상으로 담용수·광역상수도 요금을 50% 감면한다고 1일 밝혔다.

영·섬유역본부는 순천시에 담용수를 공급하고 있으며, 구례를 제외한 광주·전남 22개 지자체에 광역상수도 물을 공급하고 있다.

광주·전남을 포함한 전국 131개 지자체와 중소기업·소상공인 1100여 곳이 감면 대상에 포함됐다. 감면 대상 기간은 2개월 분이다.

지자체가 먼저 해당 지역 중소기업에 수도요금을

감면해주고, 지자체가 오는 9월까지 수자원공사에 요금감면 신청을 하면 된다.

수자원공사는 신청서 접수 후 해당 지자체의 감면 규모를 산정하고, 다음달 요금고지서에 감면액을 지참해 고지한다.

실질적인 감면금액은 각 지자체의 상수도 감면물량과 연계되며, 담용수와 광역상수도 사용비율을 반영해 사용요금의 50%를 감면할 예정이다.

한국수자원공사로부터 직접 용수를 공급받는 중소기업 가운데 올해 2월과 3월 사용량이 1000t(m³) 미만이면 별도 신청 절차 없이 사용요금의 70%를 감면받는다.

/백희준 기자 bhj@

# 광주은행, 지방선거 ‘당선기원통장’ 출시

수수료 면제 등 우대 혜택

광주은행이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6월1일)를 석 달 가량 앞두고 ‘당선기원통장’을 출시했다고 1일 밝혔다.

통장의 가입대상은 선거 입후보자 또는 입후보자가 지정한 회계책임자이다.

입후보자의 선거비용이 투명하고 원활하게 관리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신규 가입일로부터 투표 후

1개월까지 각종 수수료 면제 등 각종 우대 혜택을 제공한다.

면제대상 수수료는 선거관리위원회 제출용 제증명서 발급수수료, 전자금융 이체수수료, 광주은행 자동화기기(CD·ATM) 이용수수료, 창구 송금수수료, 제사고 신고 수수료이다.

광주은행은 지난 2018년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100여 좌, 2020년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10여 좌 ‘당선기원통장’을 판매했다.

/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



농협 광주본부 ‘그린 ESG 추진단’ 발대식 모습. 농협 광주지역본부(본부장 고성신)는 지난 28일 북구 망월동 광주농협(조합장 한진섭) 로컬푸드 직매장에서 ‘그린 ESG 추진단’ 발대식을 열고 석곡천 환경정화를 벌였다. <농협 광주본부 제공>